



2011 CES를 통해 본 IT 및 뉴미디어 업계 동향

□ 들어가기

- 국제전자제품박람회, CES (International Consumer Electirc Show), 는 1967년 뉴욕에서 처음 시작되어, 현재 매년 1월 미국의 Las Vegas에서 열리고 있음
- 미국가전협회(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)가 주최하며, 세계 각국의 주요 전자업체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행사임
- 2011년 CES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25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14만 명 이상이 관람했음
- 지난 주 열린 2011 CES의 주요 화두는 태블릿 PC, 4G LTE (Long Term Evolution), 3D로 볼 수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이를 통한 IT 및 뉴미디어 업계의 동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임

□ 태블릿 PC

- 기존 PC 또는 휴대폰 제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업체에서 태블릿 PC를 선보였으며, 수십 종의 신제품이 소개되었음
- Google의 Android OS 3.0 (Honeycomb - 태블릿 PC에 맞추어 개발된 OS버전) 또는 Windows 7 을 채택하여 선보인 태블릿 PC는 다음과 같음

Tablet	Company	OS	Size(Inch)	Remarks
Iconia Tab A500	Acer	Android 3.0	10	Tegra 2, Verizon LTE
Iconia Windows 7 tablet	Acer	Windows 7	10.1	AMD Fusion APU
Eee Pad MeMo	ASUS	Android 3.0	7	Dual-core Qualcomm processor
Eee Pad Transformer	ASUS	Android 3.0	10	Tegra 2, IPS display
Eee Slate	ASUS	Windows 7	12	Intel core i5, IPS display
Ee Pad Slider	ASUS	Android 3.0	10	Tegra 2, IPS display
BlackBerry PlayBook	RIM	QNX	7	Attractive UI, Dual-core 1G
Fujitsu Windows 7 tablet	Fujitsu	Windows 7	N/A	Intel Oak Trail Atom
Kno	Kno	Linux	14	Dual screens
Windows 7 Slate	Lenovo	Windows 7	10	Intel Oak Trail
CL900	Motion Computing	Windows 7	10	Intel Oak Trail
Xoom	Motorola	Android 3.0	10	Tegra2, LTE
WindPad 100W	MSI	Windows 7	10	Atom Z530
Nav7/9/10	Netbook Navigator	Windows 7	7/9/10	Atom
Sliding PC 7	Samsung	Windows 7	10	Intel Oak Trail
G-Slate	T-Mobile (by LG)	Android 3.0	10	N/A
N/A	Toshiba	Android 3.0	10	Tegra2

- Motorola Xoom은 유려한 디자인과 편리한 UI(User Interface/사용), 빠른 처리속도와 멀티태스킹 능력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2011년 1분기에 3G/Wi-fi 제품이, 2분기에 4G LTE/Wi-fi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
- 또한 Motorola의 Xoom은 이번 CES에서 최고의 Tablet PC로 선정되어 Motorola의 부활이 기대되고 있음
- Blackberry Playbook은 Business 사용자를 겨냥하여 개발되었으며, Blackberry의 제조사인 RIM이 2010년 4월에 인수한 QNX가 개발한 OS를 사용하고 있음
- Acer의 Iconia Tab은 Verizon의 4G LTE 망을 이용해 FiOS의 동영상 콘텐츠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음
- 이외에도 Dell의 Streak 7은 T-Mobile의 4G LTE 버전으로 소개되어 큰 관심을 받았으며 2011년 1월 중 출시예정임
- 이와 같은 방식의 미국 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할리우드와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사업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할리우드와 대등해야만 가능함



Acer Iconia Tab A500



BlackBerry Playbook



Motorola Xoom

□ 4G LTE 휴대폰

- Verizon, AT&T 등 미국의 통신사들은 4G LTE 준비에 한창이며, CES에서 새로운 4G LTE 휴대폰이 소개되었음
- LTE는 Long Term Evolution의 약자로 현재 사용되는 3G HSDPA (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)보다 약 12배 빠른 속도이며, 다운로드 속도는 최대 173 Mbps로 알려졌다
- 이는 3G 이동통신에서 진화한 것이라 기존의 네트워킹망과 연동되어 투자비, 운용비가 절약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스마트폰 개발사들이 이를 위한 제품을 발표하였음
- Motorola의 AT&T용 Atrix는 최신 고성능 사양 (dual-core 1GHz 프로세서, 1G DDR2, 1930mAh배터리, QHD 4인치 화면, 고릴라 글래스 등) 과 노트북 도킹시스템 (laptop dock - 노트북에 연결하여 PC처럼 사용가능)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음
- 또한 Motorola는 Atrix와 사양은 유사하나 노트북 도킹시스템을 제외한 Verizon용 Droid Bionic을 소개했음
- HTC는 EVO 4G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Thunderbolt, EVO Shift 4G, Freestyle 등을 Verizon, Sprint, AT&T 용으로 선보였음
- 4.5인치 화면, 1.2 GHz Hummingbird 프로세서를 채택한 AT&T용 삼성전자의 Infuse 4G는 고사양과 가장 얇은 두께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, LG전자는 4.3인치 화면을 채택한 Verizon용

Revolution을 선보였음



Motorola Atrix



HTC Thunderbolt



Samsung Infuse

□ 3D 관련제품

- 2010년이 3D의 원년 이었다면 2011년은 더 저렴하고 고화질의 3D 기기들이 이번 CES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특히 3D 캠코더와 같은 가정용 3D 기기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음
- 가장 대표적으로는 JVC의 TD1과 소니의 TD10이 3D 캠코더를 뽑을 수 있으며, 이들 캠코더의 특징은 2개의 렌즈와 2개의 센서를 탑재하고, H.264/MVC로 저장하여 마치 2대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과 같은 화질을 얻을 수 있음
- 소니는 3D 캠코더뿐만 아니라 풀 HD 3D 브라비아 LCD TV 그리고 3D 블루레이 디스크 홈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, 3D 사이버 샷 등 더욱 강화된 3D 제품들을 소개했음
- 삼성전자 역시 색다른 디자인과 소재가 돋보이는 3D LED TV를 발표, 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얇은 23mm의 3D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발표하였음
- 또한 삼성전자는 명품 안경 전문 브랜드 실루엣과의 제휴를 통해 사용자의 머리에 감기는 유선형 디자인이며 무게도 29g에 불과 하는 3D 안경을 발표하였음
- LG전자는 기존의 3D 안경과 다르게 편광안경방식의 시네마 3D TV를

발표, 이는 기존 안경의 단점인 두통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제거하였으며 더욱 밝고 선명한 3D 화면을 제공함

- LG는 또한 기존과 다른 새로운 3D 필름을 LCD에 부착하면서 더 넓은 각도에서 3D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음



Sony Full HD 3D Bravia



Samsung LED 3D TV



LG 시네마 3D TV

□ 전략 및 시사점

- CES는 더이상 하드웨어 제조사의 행사가 아니며, 최근 미디어 회사들이 파트너로서 참가하거나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 모이고 있음
- 예를 들어 ESPN의 경우, 향후 어떤 기기와 어떤 화면에 자사의 콘텐츠를 전송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
- Apple의 iOS, Google의 Android, MS의 Windows 뿐만 아니라 RIM의 QNX, HP가 인수한 Palm OS 등이 서로 경쟁하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, 복수의 OS에서 같은 UX(User Experience)와 빠른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업계에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임
- CES에 출품된 유사한 사양의 하드웨어간의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응 및 처리 속도, 멀티테스킹의 체감속도, 편리한UX(User Experience) 등으로 보이며, 따라서 게임이나

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시 체감속도를 포함한 UX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

- 4G LTE는 고사양의 하드웨어와 빠른 네트워크로 끊김 없는 고화질의 동영상 감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고화질의 게임이나 동영상 관련 콘텐츠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으나, 동시에 사용자의 사용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DMB나 e-book 등 다른 콘텐츠 업계에는 위기가 될 수도 있음
- Tablet PCs 및 스마트 폰과 함께 multi-touch screen의 발전과 확산이 예상되며, 이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 입력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UX의 변화와 기회가 예상됨
- 더 이상 3D 영상은 극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포맷이 아닌 가정이나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며 앞으로 2010년 하반기 주춤하였던 3D 콘텐츠들이 2011년에는 본격적으로 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됨

이 보고서를 작성한 Woong Bae Kim은 현재 UCLA Anderson에서 MBA 전공, Overture Korea (YAHOO! Co)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